고로모 신사

도요타시 중심부에 있는 고로모 신사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정신적, 사회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립된 것은 12 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고로모번 다이묘의 비호를 받아 신하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숭배받았습니다. 현재도 연중 참배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가장 붐비는 때는 거대한 수레가 경내에 전시되고 거리를 누비는 '고로모 축제' 시기입니다.

고로모 신사의 전신은 이 땅을 여행하던 무사가 주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사는 임무를 포기하고 조용히 일생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신사는 강 옆에 건립되기도 해서, 그는 고향인 요시노(현재의 나라현)에서 숭배하던 물의 여신 미쿠마리를 모셨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미쿠마리 숭배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고모리다이묘진(子守大明神) 숭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미쿠마리'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미코모리(御子守)'라는 이름이 비슷한 발음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로모 신사라는 이름은 현재 아이치현 동부에 있던 고로모번(도요타시의 옛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로모 신사는 현재도 고모리 신을 모시고 있으며, 아이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신사에 참배하러 옵니다. 생후 1 개월 무렵에 행하는 신생아의 통과의례인 '오미야마이리' 신사 참배, 그리고 3 세, 5 세, 7 세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을 축하하는 '시치고산(七五三)' 등 아이와 함께 신사를 방문할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본전 외에도 벼농사, 농업, 사업 번창의 신 이나리, 학문과 예술의 수호신 덴진, 불의 신 아키바 등을 모시는 섭사(주제신과 관계 깊은 신을 모시는 부속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에서는 1 년에 한 번, 10 월 셋째 주말에 웅장한 '고로모 축제'가 열립니다. 또한 매월 8 일에는 '요카이치(八日市)'이라고 불리는 작은 월례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 이 땅에 모시던 약사여래를 기리는 '요카야쿠시이치(八日藥師市)'라는 잿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카이치' 시장이 열리는 당일에는 경내에 화분, 의류, 생활용품, 음식 등을 판매하는 100 개 이상의 가판이 늘어서며 많은 사람으로 붐빕니다.